

主題 「佛教와 現代世界」



8月31~9月2日, 앱배서더호텔 대會議室서…10個國 70餘碩學 참석

母校開校70周年紀念世界仏教学術会議が「仏教와 現代世界」란 주제로 지난 8月31일~9月2일까지 市内中区소재 엠버서더호텔 大講堂에서 열렸다. 이번 学術会議는 国内 및 美·日·中

国等 10個國 70餘学者들이 參席, 3 個分科 15個  
小主題로 나누어 主題發表와 열띤 討論을 벌  
였다. (八面 참조)

九 漢  
大 載 天

發行所  
서울特別市 中区 筆洞  
3街26 東國大学校内  
東國大學校 同窓會

本会는同門相互間의  
友誼增進과 母校發展  
에 기여키 위한  
黨을 전개한다

## 慶事로다, 님 이여

## 朴 堤

오늘도 朝鮮의 바다에서 풍기는 蓼葦의 香氣  
東國大學校 구석구석에 걸그랑고 있었라.  
해마다의 學生들이 朝鮮의 바다에서  
그들이 희 코끼리를 거두기  
오늘로 70년  
새로이 입흔 번체의 희 코끼리가 불어나  
東國大學校를 그의 둑에 태운채  
해나 땅의 것이 아니여도 밝의  
그의 光明을 이 나라 이 누리에 비추고 없이하  
廢事로다. 라이여  
방신의 코진 아름다움이  
가지를 뻗어나가고

開校紀念頌詩

# 국보 상책 임지는 주賠償責任保險

# 東國人名錄 배부증

## 同門들의 적극 協贊을

開校 70 周紀念 獎學基金 조성에

同志會의 발전의 바로 어려운門들이 발전을 뜻합니다. 멀리 돌아 날부하신  
年会費는 同門들의 권익과 母校發展을 위하여 유익하게 쓰여지게 됩니다.

**年會費納付者**

- ▲ 2천원이며, 각 직장·지역·학과·그룹별 접수도 활성화됩니다.
- ▲ 本会接受分▽政 ▲ 國會총(70·政) ▲ 省立大(69·政)
- ▲ 우동회(59·經) ▲ 조(63·法) ▲ 유인진(71·農)
- ▲ 창원회(57·經) ▲ 이병우(農) ▲ 원희회(68·經) ▲ 장진소(65·營)
- ▲ 이병학(71·商) ▲ 임중식(57·經) ▲ 김중규(75·行院) ▲ 조만행(61·農)
- ▲ 임종석(69·經) ▲ 박상(64·經) ▲ 이창희(60·農)
- ▲ 수(58·經) ▲ 김창월(59·法) ▲ 김여환(65·英) ▲ 英(朴煥昌 57·農)
- ▲ 최선희(55·國) ▲ 김창호(66·英) ▲ 이주평(洪鍾一 51·政) ▲ 李相大(洪鍾一 51·政)
- ▲ 이보현(64·商) ▲ 손학중(71·應生) ▲ 이택로(70·農) ▲ 袁椿(51·政)
- ▲ (69·農經) ▲ 이은갑(74·農經) ▲ 김진식(67·農) ▲ 李容植(51·政)
- ▲ 정하성(76·經) ▲ 유종희(65·農經) ▲ 이(李容植 51·政)

連絡處 ◆ 東國大學校 同窓會事務局  
△ 指定銀行 · 朝興銀行 어의도 予金取扱所  
△ 納付方法 · 朝興銀行本店 및 全國各支店換帳에서 收納(但、收納時 영수증을  
을 一、 이 基金運營에 參與한 모든人事는 會員이 된다。  
△ 協贊金 『부案内』 ○  
△ 檢定基金目標額 『壹億圓으로』하고 그中 四千萬圓을 同窓會가 마련한다.  
一、 東國 70周年 檢定基金造成事業을 全東國인의 전국적인 參與로  
財團을 構成하여 合理의로 運營한다.  
○ 繩  
모금운동에 全東國인의 드거운 協助으로 시기를 바란다.  
70주년紀念 檢定基金 『壹億圓을 目標로』로 모금운동에 全東國인의 드거운 協助으로 시기를 바란다.

서울중구 필동3가 26 (2) 856-8888 (2) 8-31 (交) 2697  
獎學基金造成 推進委員長 崔載九





開校 70周年을 자랑하는 私立  
의 名門 東國大學校一。 우리同門  
들은 이학問의 溫和한 姿態에서  
코끼리처럼 슬기롭고 용맹한  
으로 正義의 구현에 앞장서 真理  
探求에 젊은 情熱을 바쳐왔다.  
주른번취와 치솟는 분수, 慈悲로  
운 미소가 드리운 聖像, 図書館,  
讀義室, 운동장 어느곳에서도  
우리의 솔결을 發見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母校發展을 위해  
身命을 다한 歷代 總·學長들의  
회고기를 통해 그날자취를 더듬는 것  
도 他山之石의 좋은 귀감이 아닌 到着  
것이다. 事情上 歷代順이 아닌 到着  
順으로 게재했다. <편집자>

## 東大와 나의 總長時節

&lt;1&gt;



◇ 金賛益總長近影

### 學校的 嘴望으로 就任

1968년 5월 4일 東國學院

金翼基(瑞雲)이 사장으로부터 東國學院  
학교총장의 任命状을 받았다. 그 자리  
에서 東大의 오랫동안의 수원이던  
세자 오암사장을 전달받았으니,  
① 운장 신설과 ② 中央公務員教育  
院의 買入 ③ 師範大學 신설이 그  
것이다. 이것은 全東大의 교수·직  
원·學生·졸업생과 理事 및 委員의  
통합된 의견으로서 특히 나에게  
대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중대하고도 어려운 일

들을 나를 믿고 또한 큰 기대를

걸며 원하는 일인지라 내도록 高  
齡이나 열파 성을 다하여 말바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스스로 다짐  
하였다.

自進辭退요구동 警告狀

위와같이 全東大의 어망인 출판  
알고 마음속으로는 단단한 觀悟를  
가지고 所謂 분분해신해서라도  
期의 成果를 거두겠다고 굳게決  
心한 것이다. 그런데 意外로 就任式  
도 가지기前에 声明書, 警告狀, 決  
議文 등이 가제로 우편으로 날아온다는 하면  
하였다.

직접 찾아와서 總長職辭退를 종용  
하는 이가 나타나고, 離구나 그  
語調가 非常적인데 이로인해는 懷  
疑之心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 卒業은 大學의 永遠한主人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三大宿願사업의 達成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교育은 人格陶冶를 主로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교育은 人格陶冶를 주로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교育은 人格陶冶를 주로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교育은 人格陶冶를 주로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교育은 人格陶冶를 주로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교育은 人格陶冶를 주로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교育은 人格陶冶를 주로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교育은 人格陶冶를 주로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교育은 人格陶冶를 주로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교育은 人格陶冶를 주로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교育은 人格陶冶를 주로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교育은 人格陶冶를 주로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교育은 人格陶冶를 주로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교育은 人格陶冶를 주로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교育은 人格陶冶를 주로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교育은 人格陶冶를 주로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교育은 人格陶冶를 주로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교育은 人格陶冶를 주로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교育은 人格陶冶를 주로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교育은 人格陶冶를 주로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교育은 人格陶冶를 주로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교育은 人格陶冶를 주로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교育은 人格陶冶를 주로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교育은 人格陶冶를 주로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교育은 人格陶冶를 주로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교育은 人格陶冶를 주로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교育은 人格陶冶를 주로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교育은 人格陶冶를 주로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교育은 人格陶冶를 주로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교育은 人格陶冶를 주로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교育은 人格陶冶를 주로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교育은 人格陶冶를 주로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교育은 人格陶冶를 주로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교育은 人格陶冶를 주로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교育은 人格陶冶를 주로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교育은 人格陶冶를 주로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교育은 人格陶冶를 주로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교育은 人格陶冶를 주로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교育은 人格陶冶를 주로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교育은 人格陶冶를 주로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교育은 人格陶冶를 주로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교育은 人格陶冶를 주로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교育은 人格陶冶를 주로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교育은 人格陶冶를 주로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교育은 人格陶冶를 주로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교育은 人格陶冶를 주로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교育은 人格陶冶를 주로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교育은 人格陶冶를 주로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교育은 人格陶冶를 주로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교育은 人格陶冶를 주로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교育은 人格陶冶를 주로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교育은 人格陶冶를 주로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교育은 人格陶冶를 주로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교育은 人格陶冶를 주로

을 조성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 混濁된 時代의 佛敎役割 토의

## 世界 70여 碩學 葉瓣 討論

모교 소식

9月23日 三個分科에 30名主題 발표

「佛教」

現代世界」란 주제의 世界佛敎學術會議가

8월31일~9월2일까

大会議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學術會議(중

ビウ원장)洪庭植(교대학장)에는

国内學者를

비롯

美·日·中·仏·加·斯

리랑카 등

10個國

70여 학者가

참석·佛敎가

혼돈한

變化의

時代에

해야 할

課題 등에

관한

主題 발표와

討論을

벌였다.

### 주제·佛教와 現代世界

會議는 3개分科 15개小  
主題에 각기 2명씩이 주  
제 발표를 했다. 첫날 大會  
長인 李瑄根(총장의 기조연  
설「佛教와 現代世界」에 이  
란 특별강연을 했다.

佛敎의 새로운 해석과 再  
闡明을 시도한 이번 회의의  
어가 각分科 討議 狀況에 报  
告, 総辭討議 및 結論順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이번 회의 참석자  
자들을 위해 文公部長官 초대  
로 환영「리센손」이, 宗正

총장, 甫月下理事長, 각子處  
長, 서울特別市 企劃管理室  
長, 내외교민 50여 명이 참  
석했는데 朴聖厚(경리과장의  
上標의 순으로 풀어지기도 했다.

※各分科 制題

◇第一分科 主題: 現代國際

社會의 理念의 混沌 속에서

의 佛敎의 位置

◇第二分科 主題: 現代人을  
為한 生活理想으로서의 佛敎

現代社會에 어울거 適應할  
것인가?

◇第三分科 主題: 佛敎는

서울市指定文化財

서울市指定工事上

崇政殿復元 上標式

서울市指定文化財

서울市指定工事上

崇政殿 移軸復元工事上

서울市指定地

方文化財로 서울市와 共同

으로 移軸工事を

추진하고

있는데 完工되면 法堂으로

다.

이날 上標式에는 李瑄根

夏季放學동안 農漁村農人

활동、修鍊大會 探險、野營

訓鍊等이 활발히 전개되어

奉仕 및 協同精神 배양과체

협력단을 도모하는 한편 東

國의 校威도 크게 떨쳤다.

◇農漁村 복사 활동

10個부대 (8개씩)를 에서

3~13명 (男2~25, 女88명)

→ 이 참가 教育봉사、生活

봉사역과 나진里、核學 미敬

→ 이 참가 教育봉사、生活

봉사역과 나진里、核學 미敬

→ 第7부대 (農漁村研究部)

指導교수: 金洪培·李相植·

代表: 이영근 19명 (男15,

女4) 7월 15일~24일, 忠南

단성郡全生面간장里 農事技

集班 5권 (72년) → 집마자

로 36년 東亞日報에 詩作

明女大 후기 雜誌에서 출판

→ 第9부대 (農漁村研究部)

指導교수: 金洪培·李相植·

代表: 이영근 19명 (男15,

女4) 7월 15일~24일, 忠南

단성郡全生面간장里 農事技

集班 5권 (72년) → 집마자

로 36년 東亞日報에 詩作

明女大 후기 雜誌에서 출판

→ 第10부대 (農漁村研究部)

指導교수: 金洪培·李相植·

代表: 이영근 19명 (男15,

女4) 7월 15일~24일, 忠南

단성郡全生面간장里 農事技

集班 5권 (72년) → 집마자

로 36년 東亞日報에 詩作

明女大 후기 雜誌에서 출판

→ 第11부대 (農漁村研究部)

指導교수: 金洪培·李相植·

代表: 이영근 19명 (男15,

女4) 7월 15일~24일, 忠南

단성郡全生面간장里 農事技

集班 5권 (72년) → 집마자

로 36년 東亞日報에 詩作

明女大 후기 雜誌에서 출판

→ 第12부대 (農漁村研究部)

指導교수: 金洪培·李相植·

代表: 이영근 19명 (男15,

女4) 7월 15일~24일, 忠南

단성郡全生面간장里 農事技

集班 5권 (72년) → 집마자

로 36년 東亞日報에 詩作

明女大 후기 雜誌에서 출판

→ 第13부대 (農漁村研究部)

指導교수: 金洪培·李相植·

代表: 이영근 19명 (男15,

女4) 7월 15일~24일, 忠南

단성郡全生面간장里 農事技

集班 5권 (72년) → 집마자

로 36년 東亞日報에 詩作

明女大 후기 雜誌에서 출판

→ 第14부대 (農漁村研究部)

指導교수: 金洪培·李相植·

代表: 이영근 19명 (男15,

女4) 7월 15일~24일, 忠南

단성郡全生面간장里 農事技

集班 5권 (72년) → 집마자

로 36년 東亞日報에 詩作

明女大 후기 雜誌에서 출판

→ 第15부대 (農漁村研究部)

指導교수: 金洪培·李相植·

代表: 이영근 19명 (男15,

女4) 7월 15일~24일, 忠南

단성郡全生面간장里 農事技

集班 5권 (72년) → 집마자

로 36년 東亞日報에 詩作

明女大 후기 雜誌에서 출판

→ 第16부대 (農漁村研究部)

指導교수: 金洪培·李相植·

代表: 이영근 19명 (男15,

女4) 7월 15일~24일, 忠南

단성郡全生面간장里 農事技

集班 5권 (72년) → 집마자

로 36년 東亞日報에 詩作

明女大 후기 雜誌에서 출판

→ 第17부대 (農漁村研究部)

指導교수: 金洪培·李相植·

代表: 이영근 19명 (男15,

女4) 7월 15일~24일, 忠南

단성郡全生面간장里 農事技

集班 5권 (72년) → 집마자

로 36년 東亞日報에 詩作

明女大 후기 雜誌에서 출판

→ 第18부대 (農漁村研究部)

指導교수: 金洪培·李相植·

代表: 이영근 19명 (男15,

女4) 7월 15일~24일, 忠南

단성郡全生面간장里 農事技

集班 5권 (72년) → 집마자

로 36년 東亞日報에 詩作

明女大 후기 雜誌에서 출판

→ 第19부대 (農漁村研究部)

指導교수: 金洪培·李相植·

代表: 이영근 19명 (男15,

女4) 7월 15일~24일, 忠南

단성郡全生面간장里 農事技

集班 5권 (72년) → 집마자

로 36년 東亞日報에 詩作

明女大 후기 雜誌에서 출판

→ 第20부대 (農漁村研究部)

指導교수: 金洪培·李相植·

代表: 이영근 19명 (男15,

女4) 7월 15일~24일, 忠南

단성郡全生面간장里 農事技

集班 5권 (72년) → 집마자

로 36년 東亞日報에 詩作

明女大 후기 雜誌에서 출판

→ 第21부대 (農漁村研究部)

指導교수: 金洪培·李相植·

代表: 이영근 19명 (男15,

女4) 7월 15일~24일, 忠南

단성郡全生面간장里 農事技

集班 5권 (72년) → 집마자

로 36년 東亞日報에 詩作

明女大 후기 雜誌에서 출판

→ 第22부대 (農漁村研究部)

指導교수: 金洪培·李相植·

代表: 이영근 19명 (男15,

女4) 7월 15일~24일, 忠南

단성郡全生面간장里 農事技